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0)

제자의 길

[본문 요한복음 15:8]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비밀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에 있습니다.

햇불회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동으로 된 조각품을 보았습니다.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의 배반자들을 배웠습니다. 가롯유다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실수했지만 가롯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로나 그것이 자살하는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요인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의 첫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믿음’ 이며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바꾸어서 ‘관계’ 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

오늘은 ‘참된 제자의 길’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하여 세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결은 요한복음 13장 35절과 15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고 세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입니다.

‘나의 말’ 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 과 ‘말씀’ 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으면 풍성해집니다. 베드로서를 보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처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고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지만 나와 동일한 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을 믿고 ‘사랑’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방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뜬구름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인류를 사랑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거지가 와서 도와 달라고 구걸을 하자 그는 “너는 인류를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바로 그 거지입니다. 내 눈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돕는 것이 인류를 돕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방법은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과 말씀은 다릅니다. 빛이 있으라하시매 빛

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특징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 사랑하라’ 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말이 있듯이 곱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곱게 말하지만 사납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사납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를 흘리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계명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자도 라는 뜻입니다. ‘거한다’ 는 말은 ‘산다’ 는 말과 같습니다.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한다는 말은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그 내면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일치’ 입니다.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열쇠는 일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로 존재 하지만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 됨 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일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일치하려 하지만 마귀의 사람들은 항상 분열시키려 합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은 늘 혼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늘 화합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체질입니다. 마귀의 체질은 분열하고 싸우고 비판합니다. 말을 해도 늘 시비를 걸고 곱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체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하나를 만들고 실수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격려해줍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예수체질입니다.

봉사보다 우선되는 ‘교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교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봉사인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교제 없이는 참된 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봉사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치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일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핵심어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직장에서 직원과 상사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신병이라는 말이 곧 ‘분열’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분열로 인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분열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제에 재미가 없고 답답한 이유는 봉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봉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교제가 먼저 있고 나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교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제를 가진 후에 봉사해야 합니다. 땀을 쏟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가장 핵심 되는 단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입니다. 제자도의 목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끊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 삼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세 모습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 의 일대일의 관계이고 일대일 양육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와 일대일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입니다. 일대일 양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양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대일은 공부가 아니고 삶을 나누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자의 모습을 세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첫째 군사, 둘째 운동선수, 셋째 농부입니다. 군사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특징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익숙하면 자유해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해지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천국에 익숙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완벽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삶은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끊임없는 메시지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이용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아낌없이, 조건 없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줄 알게 됩니다.

과실을 맺는 성도

마지막으로 ‘과실을 많이 맺으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한명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내 아버지는 열매를 수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하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먹지 않고 주인이 먹습니다.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열매를 맺는 것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의 요점입니다. 이런 헌신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9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성한 과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여러분의 열매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은누리신문**